

2015년 12월 인도 소식입니다.

2015년도 어느덧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선교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인도 소식

2015년 마지막을 장식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 지난 11월 북인도 비하르주에서 주지사를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할 당시에 달리트(불가촉천민)의 죽음에 관하여 몇몇 힌두정당 주지사들의 표현에 ‘개가 죽은’ 것에 비유하여 많은 사회단체들의 비난 속에 선거가 치러졌는데 매스컴에서는 BJP힌두정당이 압승 할 것으로 예상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BJP힌두정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불가촉천민 죽음의 사건으로 보여준 BJP의 독선적이고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BJP 대신 현재 비하르주를 대표하는 JDU 당에게 몰표를 주었습니다. 현재 인도 집권당의 오만 불손한 BJP 힌두정당에 큰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2) 남인도 첸나이의 대홍수

남인도 첸나이에 10월 중순부터 간간히 내리던 폭우가 11월 들어서면서 거의 매일 폭우를 쏟아 붓더니 급기야 12월 2일 하루 종일 내린 폭우로 첸나이 시내 전체가 물속에 잠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100년 만에 일어난 이번 홍수로 정부소식통은 이재민 170만명과 500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첸나이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많은 공장들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집은 약간 고지대라서 침수피해는 없었지만 전기와 인터넷통신이 5일 동안 끊겼고 음식을 제대로 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첸나이 시내 학교들도 거의 한 달간 휴업을 하는 기록적인 홍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간선도로와 고속도로들이 거의 파괴되었고 집과 하수도과 도로를 복구하는데도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영광교회와 예수거룩교회를 가려면 댐을 지나야 하는데 교회를 가다가 본 광경은 홍수로 댐 위로 물이 넘치는데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댐 아래로 몰려 고기를 잡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전 불감증은 여기도 있네요.



침수된 쉐나이 시내

댐 아래에서 고기잡는

비 그친 후 희망의 햇살

3) 선교지 소식

1, 예수구원교회 헌당예배

폭우가 한창이던 지난달 11월 17일 예수구원교회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상황에서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7일과 18일 2일간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예수구원교회를 축복하였습니다. 교회건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예수구원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예수영광교회

디도목사의 예수영광교회가 연일 내리는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코코넛 초가지붕이 붕괴되었습니다. 비가 매일 내리는 관계로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복구를 시작 합니다. 교회지붕 복구는 저희가정과 성도들의 헌금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며 초가지붕이 아닌 양철 지붕으로 복구될 예정입니다.

3. 예수기적교회 노인사역.

올해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예수기적교회 노인 사역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계속되는 비로 날씨가 우중충하고 기온도 많이 내려가서 담요를 성탄절 선물로 미리 준비하여 나누었습니다.

4. 예수기적교회 키보드 스쿨이 1년 6개월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5명이 시작하였는데 최종 8명의 어린이가 과정을 마치고 예배시간에 반주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영광교회에서 1년 과정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예수구원교회, 예수영광교회에서 1년 과정이 끝나는 대로 예수거룩교회 순으로 키보드 수쿨은 계속 됩니다. 지난 기도편지 때 키보드 2대를 후원요청을 드렸는데 상림교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2대의 키보드는 예수영광교회와 예수거룩교회에 전달 될 예정입니다. 예수기적교회에서는 드림 스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5. 쿠달누루 빌리지와 파다파이 빌리지 교회건축건.

예수그리스도교회 구루다스 목사와 함께 진행하는 빌리지 전도사역의 열매는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쿠달누루는 저희집 첸나이에서 200KM 남쪽 해변 가까운 곳입니다. 이 지역은 텃셀 전도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파다파이 빌리지 교회는 첸나이 현대 자동차 공단과 스리빠름부들 타운에 있는 르노닛산 자동차 공단 뒤편지역으로 북인도지역에서 온 힌디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인근에 작은 집을 대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침수피해를 입은 성도들을 위한 쌀 나눔

2015년 성탄절, 장학생을 위한 남인도 폰티체리 지역 아웃리치를 계획하였으나 홍수로 인한 이웃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저 그 비용을 침수피해를 입은 성도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협력교회에 쌀 25Kg, 23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소중한 사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 예수기적교회 키보드 수쿨 수료증 수여
2. 협력교회에 홍수피해 쌀 나눔
3. 노인사역 식사 전 말씀전하는 구루다스 목사
4. 예수구원교회 헌당예배 모습

기쁜 성탄절과 소망을 담은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1.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2. 파송교회와 협력교회 그리고 개인후원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3. 저희 가정이 점점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4. 현지 협력교회 목회자들이 목자의 심령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5. 기도하고 있는 쿠달누르 빌리지 교회와 파다파이 지역 힌디어 예배 교회건축을 위하여
6. 저희가 직접 사역할 교회와 유치원 그리고 사택이 함께 있는
 선교센터를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7. 사역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연락처: 이메일 jopoinn44@gmail.com(김영운) 전화 91 96773 66611

sarahkang153@gmail.com(강기엽)

인도 첸나이에서 김영운 강기엽 드립니다.